

코로나19 시대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 패러다임 연구*

— 교육 전달 방식, 운영체계,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

박종연** · 徐超凡***

<目次>

I. 서론	1. 교육 품질 관리의 문제와 혁신 방안
II. 한중 합작관학의 이론적 고찰과 제도적 발전 과정	2. 학사 운영체계의 불균형과 개선 방안
1. 한중 합작관학의 이론적 배경	3. 지역 간 발전 격차와 균형발전 전략
2. 한중 합작관학의 제도적 발전 과정	4.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
3. 코로나19 전후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	IV. 결론
III.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문제점과 혁신 방안	

I. 서론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통적인 국제 교육 협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새

* 본 논문은 2023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제1저자

*** 인제대학교 통변역대학원 석사과정생 : 제2저자

로운 교육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합작관학(韓中合作辦學)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과 성과 평가의 독창성으로 아시아 교육 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교육부의 공식 용어인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중 한국과 중국 간의 고등교육 협력 사례를 지칭하기 위해 ‘한중 합작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합작관학’은 단순한 교육 협력이나 교류를 넘어서, 중국 내에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양국 대학의 공동 운영 하에 독립적으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구조를 지칭하며, ‘joint operation of higher education’ 혹은 ‘Hezuo Banxue’와 같은 고유 명사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정확성과 중국 제도적 배경을 고려해 번역 없이 원어를 병기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중 합작관학은 양국의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중 합작관학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법적 체계의 발전 과정(김홍중, 2020)과 중외 합작관학 조례와 같은 교육 개방 정책(林金輝, 2010)을 상세히 다루었다. 둘째, 교육의 디지털화에 주목한 연구들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陳遇春, 2020)과 혼합형 학습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 교육 협력의 질적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들로, 국제화 전략(周浩波, 2013)과 교육 품질 보증 체계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협력에서 나타난 디지털 전환과 구조적 변화의 통합적 분석이 미흡하며,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수업 방식의 전환을 넘어, 교육 운영 방식, 질적 평가 시스템, 산학협력 방식, 그리고 학습자 중심 설계 등 한중 합작관학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로

나 이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와 정책 문서에 관한 문헌 연구, 주요 합작 기관에 대한 비교 분석과 문헌 조사를 병행한 질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협력 유형과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복수의 한중 합작 교육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문서와 통계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Knight(2004)의 교육 협력의 지속가능성 모델과 Moore(2019)의 디지털 교육혁신 이론이다. Knight의 모델은 교육 협력의 제도화, 내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국제교육 협력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며,¹⁾ Moore의 이론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 혁신 메커니즘의 변화를 구조화한다.²⁾ 두 이론의 결합은 코로나19 이후 한중 합작관학이 경험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 네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전달 방식의 디지털화가 합작관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활용의 효율성,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적용 효과,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운영체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학위과정의 불균형, 지역 간 발전 격차, 교육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교육 협력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교육 협력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실천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협력의 표준화 모델과 지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정책

1) Knight, Jane, "Internationalization remodeled: Definition, approaches, and rational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8(1), 2004, 5-31.
 2) Moore, M. G., *Handbook of Distance Education* 4th Edition, Routledge, (2019): 32-46.

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 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국 내 합작관학으로 연구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합작관학의 발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중 합작관학의 국제적 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II. 한중 합작관학의 이론적 고찰과 제도적 발전 과정

1. 한중 합작관학의 이론적 배경

한중 합작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협력은 Knight(2004)가 제시한 국제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두 국가 간 교육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예를 들어, 한중 합작관학에서는 중국이 대규모의 교육 제도적 기반과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은 지식의 공유와 창출, 인적자원의 교류,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포함한다. Altbach & Knight(2007)는 교육 협력이 단순한 자원의 교환을 넘어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학습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강조했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합작관학은 양국의 교육 협력에 있어서 교육적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3) Knight, Jane, "Internationalization remodeled: Definition, approaches, and rational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8(1), (2004): 11.

4) Altbach, Philip G. & Knight, Jan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11 n3~4, (2007): 296.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적 틀은 크게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과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제도적 접근은 법적·행정적 체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과정적 접근은 교육과정의 국제화와 학습 경험의 질적 향상을 강조한다. Van der Wende(2001)는 이 두 가지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교육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⁵⁾ 한중 합작관학은 이 두 가지 접근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법적 체계와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의 혼합형 학습 모델과 디지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의 제도적 기반과 한국의 교육과정 운영 노하우가 결합하여 독특한 협력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협력 모델은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Moore(2019)의 디지털 교육혁신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 방식의 전환을 넘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⁶⁾ Garrison & Kanuka(2004)는 혼합형 학습이 학습자의 자율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⁷⁾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중 합작관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교육 협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로 Huisman & Van der Wende(2004)의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교육 협력의 성공 요인을 제도적 지원

5) Van der Wende, “Internationalisation policies: about new trends and contrasting paradigms”, *Higher Education Policy*, Vol. 14, (2001): 253.

6) Moore, M. G. *Handbook of Distance Education 4th Edition*, Routledge, 2019, 32-46.

7) Garrison, D. R., & Kanuka, H., “Blended learning: Uncover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7(2), (2004): 95-105.

(Institutional Support), 교육과정 혁신(Curriculum Innovation),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 그리고 질적 보증(Quality Assurance)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⁸⁾ 한중 합작관학은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차원의 유기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 협력의 효과성 측정과 관련하여, Brandenburg & Federkeil(2007)은 ‘국제교육 협력 성과 평가 매트릭스’를 제시했다. 이 평가 체계는 정량적 지표(학생 교류 수, 공동 프로그램 수 등)와 정성적 지표(교육 만족도, 학습성과 등)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한중 합작관학은 이러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 협력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 지표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의 실천적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⁹⁾ 예를 들어, 한중 합작관학에서는 온라인 학습 만족도 조사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 이용 통계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경험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한중 합작관학의 제도적 발전 과정

한중 합작관학의 제도화는 1995년 중국 국가교육위원회의 〈中外合作辦學暫行規定〉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하였다. 이 규정은 중외합작관학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
- 8) Jeroen Huisman & Van der Wende, The EU and Bologna: are supra-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threatening domestic agenda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39(3), (2004): 349-357.
- 9) Brandenburg, Uwe & Federkeil, Gero, *How to measure internationality and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dicators and key figures*, Working paper No.92, Centre for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2007, 15-17.

〈中外合作辦學條例〉가 제정되었으며, 2004년 〈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方法〉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특히 2003년의 조례는 합작관학의 설립 기준과 질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법적 틀을 제공했다. 이는 이후 한중 합작관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¹⁰⁾

이러한 법제화 과정은 단순한 규정의 제정을 넘어 교육 협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합작기관의 설립 요건, 교육과정 구성 기준, 학위 수여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정기적인 평가와 감독 체계도 구축되었다. 이는 교육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되었다.¹¹⁾

양국 간의 교육 협력에 있어서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초기 탐색기(1992~2000)에는 언어·문화 중심의 단순 교류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단기 어학연수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험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기 경험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험하고, 교육 협력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학습 과정으로 작용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이해 증진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심화 발전기(2000~2010)에는 학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 2+2, 3+1 등 다양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공학, 경영학, 예술 등 학문 분야도 확대되었다.¹²⁾ 이 시기에는 양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

10) 이러한 정책 문서들은 한중 합작관학의 제도적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문서들이다. 특히 2003년의 조례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1) 智凌燕·劉興全, 〈中國民族高校與韓國高校國際合作發展研究〉, 《西南人文大學學報》 第4期, 2010, 254-258쪽.

12) 林金輝·劉志平, 《高等教育中外合作辦學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되었고, 공학, 경영학, 예술 등 전통적 인기 분야 외에도 신흥 학문 분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텐진사범대학과 한국 세한대학교 간 최초 공식 합작관학 프로그램은 양국의 교육 협력이 실제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¹³⁾

확장기(2010~2020)에는 학문 분야와 협력 형태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인문사회 중심에서 이공계, 의학 등 전문성과 융합성이 높은 전공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한국의 규모 있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 협력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교육 협력이 학문적 교류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계별 성과는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학위 수여 실적 등 정량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⁴⁾

운영체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하여 2+2, 3+1, 4+0 등 다양한 이수 모델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다양화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다. 이는 특히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둘째, 질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제도화되었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평가 지표 개발과 정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셋째, 학위 수여 방식이 다양화되어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이는 졸업생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에서의 학문적 인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각 발전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육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지속

123-125쪽.

13) 張雷·姜偉宏·王玉梅, 〈中韓合作辦學現狀及發展探析〉, 《大學教育》 第18期, 2023, 141쪽.

14) 같은 논문, 140-143쪽.

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의 단순 교류에서 시작하여 공동 교육과정 개발, 연구 협력, 산학협력 등으로 협력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이는 한중 합작관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학문적 교류, 공동 연구, 산학협력 등 다차원적 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적 역할은 양국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국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코로나19 전후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

코로나19는 한중 합작관학의 교육 전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국 간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의 과건형 운영 방식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 LMS 기반 학사관리, 그리고 비대면 평가 등으로 대체되며 운영 방식의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의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세미나와 중국 ‘钉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과제 제출 및 관리가 결합하여 양국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온라인 전환을 넘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동반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 분석 시스템 도입,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습 교육,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고도화다. 기존의 단순한 학습 자료 제공 플랫폼에서 벗어나, 학습 진도 관리, 성과 측정, 상호작용 촉진 등 종합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국의 e-Class와 중국의 Blackboard 플랫폼을 연계하여, 학습 자료 제공, 성과 평가, 학습 분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운영모델 역시 다변화되어, 전통적인 대면 중심 모델에서 온라인-오프

라인 융합형 모델로 전환되었다. 이는 교육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산동성, 지린성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농업, 공학, 의료 등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지린성에서는 AI 기반 의료 교육이, 산동성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연계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교육 협력이 이루어졌다.¹⁵⁾

구체적으로 운영모델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교육 과정의 모듈화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공학 과목은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을 별도의 모듈로 나누어 학생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실시간-비실시간 수업의 효과적인 조합이 이루어졌다. 이론 수업은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토론과 실습은 실시간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교과목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수업 방식이 도입되었다. 셋째, 산학협력 모델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가상 인턴십, 온라인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이 시도되었다.

질적 성과 관리 체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 평가, 학습 성과 측정, 교육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평가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¹⁶⁾ 특히 데이터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학습자의 출석률, 과제 제출률, 시험 성적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참여도 저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 유지율이 향상되었다.¹⁷⁾

또한, 새로운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과정 중심

15) 周浩波, 〈基於競爭力導向的區域高等教育國際化戰略研究〉, 《中國高教研究》第10期, 2013, 10-14쪽.

16) 張立東, 〈新冠肺炎疫情下大規模在線教學的思考〉, 《科教文匯》(下旬刊), 2020, 43-44쪽.

17) 陳遇春·潘瑞·周丹·張艷艷, 〈疫情防控形勢下高校雲課堂教學同質等效的實踐思考〉, 《中國農業教育》第4期, 2020, 18-21쪽.

평가가 강화되었다. 학습 과정에서의 참여도, 상호작용, 과제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토론 참여 횟수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과제 완료율을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다면적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교수자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학습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한중 합작관학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미래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이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중 합작관학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협력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과 맞물려, 양국은 공동으로 AI,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첨단 학문 분야의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Ⅲ.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문제점과 혁신 방안

1. 교육 품질 관리의 문제와 혁신 방안

한중 합작관학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품질 관리에 있다. 특히 참여대학의 학술적 수준 격차,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체계 미비, 그

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전략의 부재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1) 참여대학의 학술적 수준 격차

참여대학의 학술적 수준 격차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S 세계대학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0위권 내 한국 대학의 참여율은 3.39%(2개교)에 불과하며,¹⁸⁾ 중국의 경우 QS 세계대학 순위 800위권 내 포함된 대학이 전무하며, 이는 양국 간 학술적 협력에서 중국 대학의 국제 협력 수행 역량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이 ARWU 기준으로 한국은 201~300위권에 3개교(5.08%)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은 상위 300위권 내 대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¹⁹⁾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쌍일류’ 대학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도 주로 과학기술 성과, 논문 실적, 국제학술지 게재 건수 등 정량적 연구 성과 지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학 내부의 연구 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상대적으로 국제 공동학위 과정, 해외 합작 교육과정과 같은 고등교육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은 전략적 관심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대학과의 교육 협력은 일부 연해지역 대학을 중심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쌍일류’ 대학의 참여율은 전체 합작 프로그램 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협력 자체에 대한 배제라기보다는, 중국 내 대학 발전 정책과 고등교육 경쟁 체계가 연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배경에 기인한다. 둘째, 한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자체적인 국제화 전략을 선호하며, 중국과의 합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양국 대학 간 학사 운영체계와 교육

18)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3: Top global universities”, [EB/OL],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3>.

19) 張雷·姜偉宏·王玉梅, 〈中韓合作辦學現狀及發展探析〉, 《大學教育》 第18期, 2023, 141-143쪽.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은 수업 방식에서 학생 중심의 토론형 학습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 대학은 전통적으로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협력 과정에서 운영상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체계 미비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표준화된 교육 품질 평가 시스템이 부재하다.²⁰⁾ 예를 들어, 현재 운영 중인 148개 합작 프로그램 중, 중국 교육부 등록 기준에 따라 정기적 질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32%에 불과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검토는 대부분 교원 개인의 자의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화된 피드백 및 성과 기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일관된 품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다. 특히 온라인 교육이 확대된 상황에서 학습 효과성 측정과 교육 만족도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²¹⁾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출석률과 과제 제출 여부만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어 학습자의 실제 학습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수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3)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혁신 전략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대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20) 林金輝·劉志平, 《高等教育中外合作辦學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145-147쪽.

21) 陳遇春·潘瑞·周丹·張艷艷, 〈疫情防控形勢下高校雲課堂教學同質等效的實踐思考〉, 《中國農業教育》 第4期, 2020, 18-21쪽.

차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교수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상위권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통합적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 공동의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피드백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교육 성과와 학습 경험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수법 혁신 워크숍,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의 교수진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교육 기술 및 교수법을 공유하고, 공동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국 대학 간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술적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IT 기업과 중국의 제조업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산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과 AR/VR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여 이공계 전공 학생들에게 실제 실험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중 합작관학의 교육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사 운영체계의 불균형과 개선 방안

한중 합작관학의 학사 운영체계는 학위과정 구성의 불균형과 학위 수여 방식의 편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요

구된다.

1) 학위과정 구성의 구조적 불균형

현재 한중 합작관학의 학위과정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의 91.6%가 학사과정에 집중됐지만,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6개(6.3%), 박사 학위 프로그램은 1개(2.1%)에 불과하다. 특히 합작교육기관의 경우 석사과정이 1개뿐이며 박사과정은 전무한 상황이다.²²⁾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교육제도 차이로 인한 고등교육 심화 과정 운영의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학부 중심의 대규모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지만, 한국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연구 중심 교육과 국제 협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협력 과정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²³⁾ 둘째, 연구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공동 연구 시설, 연구비 지원, 연구 인력 교류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⁴⁾ 셋째,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산업계의 실무 인력 수요가 높지만,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²⁵⁾ 예를 들어, 산동성은 조선·기계·무역 등 해양 중심 산업구조에 맞추어 공학과 경영학 위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반면, 쓰촨성은 ICT 기반 산업이 성장 중임에도 해당 분야 합작 프로그램 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

22) 林金輝·劉志平, 《高等教育中外合作辦學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110-154쪽.

23) 魏玉亭·高長完, 《韓國高等教育國際化建設：動因、戰略與挑戰》, 《比較教育研究》 第6期, 2019, 67-74쪽.

24) 유소소, 〈한중 고등교육기관의 “中外合作办学” 협력 현황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시사점〉,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181, 2024, 349-355쪽.

25) 張雷·姜偉宏·王玉梅, 〈中韓合作辦學現狀及發展探析〉, 《大學教育》 第18期, 2023, 142-143쪽.

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2) 학위 수여 체계의 편중 현상

학위 수여 방식에서도 현저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 중 중국 단독학위 수여가 78.82%(67개)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 단독학위는 4.71%(4개), 공동학위는 16.47%(14개)에 그치고 있다.²⁶⁾ 특히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에서 1년 이상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학생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심화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공동학위 과정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²⁷⁾

이러한 편중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국제화 수준이 저하된다. 단독학위 중심의 운영은 양국 교육자원의 효과적인 결합을 저해한다. 둘째,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된다. 공동학위 취득 기회의 제한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어렵게 한다. 셋째, 교육 협력의 질적 심화가 어렵다. 단순한 학점 이수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협력이 제한된다.

3) 균형 있는 학사 구조 확립 방안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원 과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중심 대학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비 지원 확대,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I 연구 센터 설립 및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석·박사과정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²⁸⁾

26) 같은 논문, 141-142쪽.

27) 같은 논문, 142-143쪽.

28) 魏玉亭·高長完, 《韓國高等教育國際化建設: 動因、戰略與挑戰》, 《比較教育

다음으로 공동학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양국 공동의 학위 수여 기준을 수립하고, 학점 상호인정 체계를 표준화하며, 예를 들어, 한국의 공학 분야 학점을 중국의 경영학 학점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학점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산둥성에서는 해양 산업 관련 학위과정을, 경상남도에서는 스마트 제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도 필요하다.²⁹⁾

이러한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현행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어, 기존 학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평가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재정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질 관리 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 과제 완성도, 졸업 후 취업률 등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피드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중 합작관학의 학사

研究》第6期, 2019, 70-73쪽.

29) 郭楠·牛淼淼·張斌, 〈結合地域特色產業的研究生培養模式探索〉, 《大學》, 第5期, 2024, 185-188쪽.

구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교육 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3. 지역 간 발전 격차와 균형발전 전략

한중 합작관학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지역 간 발전 격차이다. 본 절에서는 한중 합작관학의 지역별 분포 양상과 그로 인한 협력 기회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실제로 다수의 합작 프로그램이 산동성, 지린성, 허베이성 등 지리적 접근성과 산업 기반이 우수한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내륙 지역은 프로그램 수, 운영 규모, 전공 다양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편중은 단순히 중국 고등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한국 측 대학들이 합작 대상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실무적 편의성(교통, 행정 협조, 시장성 등)을 우선 고려한 경향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중 합작관학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내 고등교육의 인프라 격차 완화뿐 아니라, 한국 대학의 협력 전략 다변화, 그리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내륙 지역 대학과의 협력에서는 중장기적 성과를 목표로 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장기 파견제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중심 모델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1) 지역별 교육자원 분포의 불균형

2023년 3월 현재, 중국의 학부와 그 이상의 중외 합작관학 프로그램은 총 1,082개(학부 911개, 대학원 171개), 중외 합작관학기구 135개로, 그중

30) 周浩波, 〈基於競爭力導向的區域高等教育國際化戰略研究〉, 《中國高教研究》第10期, 2013, 11-13쪽.

에 한중 합작관학 프로그램과 기구는 모두 88개이다. 한중 합작관학 프로그램과 기구는 모두 20개 성, 4개 직할시, 1개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이 25%(2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린성 21.59%(19개), 허난성 10.23%(9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³¹⁾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다. 내륙 지역 학생들은 연해 지역에 비해 합작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접근성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인재 양성 격차로 이어진다. 둘째, 교육인프라의 격차이다. 연해 지역에 비해 내륙 지역은 교육 시설 부족과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첨단 기자재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허난성과 간쑤성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다. 셋째, 산학협력의 불균형이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다국적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륙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에 의존하거나 협력 기회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산업 체계에 노출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둥성에서는 해양 산업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지린성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예를

31) 張雷·姜偉宏·王玉梅, 〈中韓合作辦學現狀及發展探析〉, 《大學教育》 第18期, 2023, 141쪽.

들어, 내륙 지역 대학에 5G 기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VR/AR 기술을 활용한 실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수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도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수요에 맞춘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먼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육성하며, 예를 들어, 지린성에서는 농업 기술 특화 거점대학, 산둥성에서는 해양 연구 특화 거점대학을 운영하여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거점대학 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교수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별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학생 취업률,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산학협력 참여 기업 수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아 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 사항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계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별 발전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 가능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교육 인프라 강화, 2단계에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3단계에서는 국제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한중 합작관학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육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 합작관학의 교육 플랫폼은 중국 측의 ‘钉钉’과 한국 측의 ‘ZOOM’, ‘Teams’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 교육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양국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학습 자료 공유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ZOOM과 ‘钉钉’의 자료 호환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추가하여 양국 학생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공동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의 학습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습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학생별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적합한 학습 자료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습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도 개선되어야 한다. 직관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모바일 최적화를 지원하며,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형 학습 모델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질적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표준 교육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 비율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론 강의는 70% 온라인, 실습 및 토론은 30% 대면으로 구성하는 등

교과목 특성에 따라 운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고,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의 품질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콘텐츠 개발 방침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 디지털 강의 콘텐츠 개발 시 교수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형과 방침을 제공하며, 품질 인증 체계를 통해 콘텐츠의 학문적 타당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디지털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예로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AR/VR 기술 활용 워크숍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 최적화 방법을 교육하며, 교육공학 전문가가 직접 교수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수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까지 참여 학생의 80% 이상이 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8년까지 메타버스 캠퍼스 기반의 시뮬레이션 학습 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1단계(2025~2026)에서는 통합 플랫폼 개발, 표준 운영모델 수립, 인프라 확충 등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참여 기관에서 동일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사용하도록 통합하고,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및 사용 교육을 제공하여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단계(2026~2027)에서는 AI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 도입,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혁신적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³²⁾ 3단계(2028~2030)에서는 완전 통합형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교육 허브 역할 확립,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선도 등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32) 劉益東, <AI教育革命加快拔尖創新人才培養與評價>, 《中國考試》 第8期, 2024, 1-8쪽.

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AI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며, 기술 표준화를 통해 양국 플랫폼 간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적 측면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중 합작관학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교육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한중 합작관학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 합작관학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 품질 관리 측면에서 참여대학의 학술적 수준 격차와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QS 세계대학 순위 상위권 대학의 낮은 참여율과 우수대학의 소극적 협력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학사 운영체계에서 학위과정 구성의 불균형과 학위 수여 방식의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의 91.6%가 학사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 단독학위가 78.82%를 차지하는 현상은 교육 협력의 심화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둥성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보유했지만, 내륙 지역인 쓰촨성은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아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단순한 지리적 분포의 문제를 넘어 교육 인프라의 격차, 산학협력의 불균형, 교육 기회의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내륙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제한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 플랫폼의 분절적 운영, 혼합형 학습 모델의 표준화 부재,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미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대된 온라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와 효과성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플랫폼 기반 수업 분석 지표(출석률, 활동 빈도, 피드백 응답률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 운영 콘텐츠에 대한 품질 인증 기준(교육 목표 연계도, 콘텐츠 난이도, 학습 성과 환류 체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적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교수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 기준의 표준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균형 있는 학사 구조 확립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확충하고,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연구 중심 대학원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석·박사과정 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양국 공동의 학위 수여 기준 수립, 학점 상호인정 체계 표준화, 온라인 교육 학점 인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

한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대학 육성, 교육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 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플랫폼의 통합적 운영, 혼합형 학습 모델의 표준화,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계획을 포함한다. 1단계에서는 통합 교육 플랫폼 개발과 교수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2단계에서는 AI 학습 분석 시스템과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3단계에서는 완전 통합형 교육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재정 분담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한중 합작관학은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혁신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합작관학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국 내 합작관학으로 연구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소 5년 단위의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디지털 교육 협력의 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일본·호주 등 타국과의 합작 모델과의 비교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한중 합작관학의 상대적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MS 데이터 기반의 학습 분석, 온라인 수업 효과성 검증 도구 개발 등 실증적 분석 도구 구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홍중, 《한국 고등교육 해외 진출 분석과 합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0.
- 유소소, 〈한중 고등교육기관의 “中外合作办学” 협력 현황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시사점〉,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181, 2024.
- 陳璫, 〈中外合作辦學模式下韓語教學研究〉, 《青年與社會》 第9期, 2020.
- 陳遇春·潘瑞·周丹·張艷艷, 〈疫情防控形勢下高校雲課堂教學同質等效的實踐思考〉, 《中國農業教育》 第4期, 2020.
- 郭楠·牛淼淼·張斌, 〈結合地域特色產業的研究生培養模式探索〉, 《大學》 第5期, 2024.
- 林金輝·劉志平, 《高等教育中外合作辦學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 劉益東, 〈AI教育革命加快拔尖創新人才培養與評價〉, 《中國考試》 第8期, 2024.
- 魏玉亭·高長完, 《韓國高等教育國際化建設: 動因、戰略與挑戰》, 《比較教育研究》 第6期, 2019.
- 張雷·姜偉宏·王玉梅, 〈中韓合作辦學現狀及發展探析〉, 《大學教育》 第18期, 2023.
- 張立東, 〈新冠肺炎疫情下大規模在線教學的思考〉, 《科教文匯》(下旬刊), 2020.
- 智凌燕·劉興全, 〈中國民族高校與韓國高校國際合作發展研究〉,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報) 第4期, 2010.
- 周浩波, 〈基於競爭力導向的區域高等教育國際化戰略研究〉, 《中國高教研究》 第10期, 2013.
- Altbach, Philip G. & Knight, Jan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11 n3-4, (2007).
- Brandenburg, Uwe & Federkei, Gero, *How to measure internationality and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dicators and key figures*, Working paper No.92, Centre for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2007.
- Garrison, D. R., & Kanuka, H., “Blended learning: Uncover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 7(2), (2004).
- Jeroen Huisman & Van der Wende, “The EU and Bologna: are supra-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threatening domestic agenda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39(3), (2004).
- Knight, Jane, “Internationalization Remodeled: Definition, Approaches, and Rational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8(1), (2004).
- Moore, M. G. *Handbook of Distance Education 4th Edition*, Routledge, 2019.
- Van der Wende, “Internationalisation policies: about new trends and contrasting paradigms”, *Higher Education Policy*, Vol 14, (2001).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paradigm of Korea–China Hezuo Banxue (joint school oper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ten representative

program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the study identifies key institutional shifts and emerging challenges.

The findings reveal four major structural issues. First, significant disparities in academic standards and the absence of an integrated quality assurance framework limit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Hezuo Banxue. Second, a structural imbalance in degree offerings—where 91.6% of programs are at the undergraduate level and 78.82% grant Chinese-only degrees—hinders deeper academic collaboration. Third, regional disparities persist, with most programs concentrated in coastal provinces, thereby limiting access for inland regions. Fourth, the accelerated shift toward digital education has exposed challenges such as fragmented platform management, inconsistent LMS integration, and the lack of standardized hybrid learning model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1) expanding participation from top-tier universities in both countries; (2) promoting diversification in degree levels and joint degree schemes; (3) designing regional specialization strategies aligned with local industries; and (4) establishing a long-term roadmap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These measures, supported by policy alignment and institutional collaboration, are essential to reposition Korea-China Hezuo Banxue as a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model of global higher education.

While the present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it also acknowledges limitations in scope and time fram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longitudinal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international joint education models to provide broader insights into the evolving landscape of digital higher education.

Key Words : Hezuo Banxue(합작관학), Korea-China Hezuo Banxue(한중 합작관학), Digital Learning Transformation(디지털 학습 전환), Educational Quality Assurance(교육 품질 보증), Regional Educational Development(지역 교육 발전)

